



현대중공업

포항종합제철

* 전용선 사용 물류비 크게 줄여 *

포항제철이 철강제품 전용 수송선인 로로선(Roll on/Roll off)을 운영, 선적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철은 지난해 초부터 포항, 광양, 마산, 평택항에 6척의 로로선을 투입, 연간 1백8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보았다. 로로선은 선적이나 하역시 크레인을 이용하던 작업과 달리 공장에서 대형 용기에 4~10개씩 제품을 담아 이를 차량으로 선박에 옮기도록 설계된 수송선으로 로로선을 이용할 경우 선적시간을 기존의 36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작업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 스틸 맥주캔 하반기부터 양산 *

포항제철이 국내 제관사와 공동으로 스틸 맥주캔 양산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스틸 맥주캔을 맥주 3사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틸 맥주캔의 상용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포철은 지난 97년 가공성이 뛰어난 맥주캔용 초박막(0.245mm) 스틸 캔 소재를 개발하고 그 동안 저장시험을 통해 이의 실용화를 추진해왔다. 포철은 8월부터 맥주 3사가 포항과 광양지역 소비자들에게 스틸 캔 맥주를 시범 판매한 뒤 11월부터 전국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 0.8mm극박 열연강판 생산기술 세계 최초 개발 *

포항제철이 일반 열연공장에서도 특수 공정없이 기존 공정을 이용해 0.8mm 초극박 열연강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의 두께는 일반 열연공장에서도 특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소 두께인 1.2mm보다 0.4mm 얇다. 포철은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개발한 이 제품의 생산 판매체제를 갖추는 대로 생산제품을 냉연대체제로 수출할 방침이다

한편 포철은 열연코일제품의 일시적인 공급부족현상을 덜기 위해 다음달 25일 마칠 예정이던 광양 1열연공장 보수공사의 기간을 4일 앞당겨 5만의 열연코일을 6월 하순부터 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 새 용접공법 개발 *

현대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주판 버트(Butt)부위 용접공법을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새로운 용접공법은 내부재를 먼저 용접한 뒤 주판을 용접하던 기존의 공법과는 정반대로 주판을 먼저 용접하고 내부재를 용접하는 기법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재를 먼저 용접하는 기존의 공법은 용접 수축분을 감안, 여러차례 절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새 용접공법은 주판변형이 작아 용접량의 20%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도크내 건조작업과 블록조립 및 탑재과정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었다.

* 태 벤차마스플랫폼 준공 *

현대중공업이 지난 97년 7월 미국의 포고(POGO)사로부터 7천3백만 달러에 수주한 태국 벤차마스(Benchamas)플랫폼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사는 태국의 수도 방콕 남동쪽 3백65km 해상인 벤차마스 필드에서 하루 5백만 m^3 의 천연가스와 2천5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현대는 60명용 거주구 플랫폼과 프로세스 플랫폼 각 1기, 재킷 2기를 설계에서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일괄 수행했다. 특히 플랫폼간 파이프 연결 작업(Hook-Up)과 시운전 작업은 인건비가 싼 말레이시아 사쿠엔지니어링사에서 아웃소싱을 하여 초기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

현대중공업이 네덜란드의 'P&O 네드로이드' 사로부터 세계최대 컨테이너선인 6,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3억달러에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6,800TEU급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길이 300m, 폭 43m, 높이 24.5m이며 8만마력의 세계최대 엔진이 탑재된다

현대중공업은 이 선박에 자체기술로 개발한 8만마력의 '슬즈' 엔진을 장착해 21노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작하여 2001년 상반기에 선주측에 인도할 계획이며, 네드로이드사는 이 선박을 아시아·유럽간 운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3

억달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함으로써 최근의 부진한 조선수주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0만톤급 선박 4억弗 수주 ***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와 공동으로 이란 국영선사인 NITC사에서 30만t급초대형 유조선(VLCC) 5척을 총 4억1,000만달러에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4억1,000만달러는 올해 국내 조선업계에서 체결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규모다. 현대중공업이 200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도할 이 선박은 길이 333m, 폭 58m, 깊이 22.2m에 15.8노트 속도로 운항하며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자체 제작한 최대 3만 6,220마력 엔진을 탑재한다. 이 선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선체로 건조되며 침단 통신, 항해, 자동화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NITC사는 75년에 설립된 이란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로 유조선 정제품운반선 등 총 40여 척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 최대 국영선사이다

현대자동차

*** FIFA 공식후원사 계약 ***

현대자동차가 2002년 월드컵을 포함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와 FIFA의 마케팅 공식대행사인 ISL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정몽구 회장, 조셉 블래터 FIFA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사 계약 발표회를 가졌다

현대사는 지난 2월 FIFA가 주관한 FIFA공식 후원사 입찰에 참여, 자동차부문에서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돼 그 동안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공식 발표회를 갖게 됐다. 현대는 자동차부문에서는 유일하게 FIFA의 공식파트너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2002년 월드컵을 포함해 FIFA가 주관하는 13개 대회에 공식 차량을 제공하게 된다. 또 광고 판촉 제품 등에 대회 마크와 마스코트를 이용해 공식후원사임을 표기하고 모든 경기장에 광고보드 2개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자동차용 블랙박스 개발 ***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용 블랙박스 개발에 성공하고 이 장치를 오는 2003년부터 승용차 및 상용차 모든 차종에 옵션으로 장착한다.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교통

사고 발생시 모든 정보를 기록해 분석하는 장치로써, 현대는 97년부터 2억원을 들여 이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기존 제품과 달리 비행기 블랙박스과 유사한 기능의 블랙박스로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다. 이 장치는 차량 곳곳에 붙어 있는 센서를 통해 외부 충격, 운전자의 핸들조작,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의 조작 등 모든 사항을 사고시점 전후 일정 시간동안 기억하며 또 충돌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시스템 외부에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라인이 스스로 단선이 되어 시스템 내부에 장착된 정보만을 기록하도록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이 충돌 후 물속에 잠기더라도 충돌정보는 그대로 저장되며 사고지역의 도로상태가 눈길인지 비포장도로인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1차 충돌 후 2차 충돌이 발생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충돌정보를 기록한다. 현대자동차는 충돌정보를 이용한 사고상황 재현 및 원인을 규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했으며 3차원 애니메이션을 통한 차량의 전복 사고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

*** 소형차 '베르나' 出市 ***

현대자동차가 엑센트 후속 모델인 소형차 '베르나'를 새로 판매한다. 베르나는 "엑센트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졌으며, 정면-측면 충돌테스트 등 선진국의 까다로운 규격을 모두 통과하여 9월부터 미국과 유럽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차는 길이 4m23cm, 폭이 1m67cm로 엑센트보다 각각 12cm, 5cm 길어졌다. 또 성능이 개선된 엔진과 브레이크장치를 탑재했으며, 최대 96마력의 파워를 낼 수 있고, 격자 모양의 크롬도금 그릴에 각진 스타일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준중형차의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5년동안 150만대를 국내 외에 판매할 계획이며 오는 7월과 9월에는 각각 5도어형과 3도어형 베르나를 내놓는다

삼성중공업

*** 선박건조 54% 증가 ***

삼성중공업이 선박 건조의 호조에 따라 올 1/4분기 선박건조량이 11척, 77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척, 50만t보다 54% 늘어났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건조목표는 230만t으로 1/4분기에 이미 목표량의 35% 작업을 끝마쳐 계획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은 97년 달러 당 800원대 환율에서 수주한 것이어서 상당한 환차익과 함께 1,5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건조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초대형 유조선(VLCC), 원유시추선(드릴십), 원유운반선 등 대형선박 건조에서 블록의 대형화로 30만t 유조선을 147개 블록 조립에서 92개로 평균 45% 줄이고 블록 탑재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생산효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 첨단항법장치 국내 첫 개발 ***

삼성중공업이 위성을 통해 선박운항을 제어하는 차세대 통합항해 정보시스템을 국내처음으로 개발, 해외수출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위성을 통해 선박의 위치와 운항을 제어하고 연료나 엔진룸의 관리, 자동항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항해 중 발생하는 모든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항법장치이다

대형선박에 쓰이는 이 항해시스템은 위험지역을 자동검색 할 수도 있고, 태풍위치를 자동으로 감지, 음성으로 경고해 주며, 운항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 항해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또 한사람이 선박 전체를 감시하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마우스만 클릭하면 항로를 입력할 수 있다 3차원 그래픽을 이용, 각종 데이터를 표시토록 했으며, 해도를 세 종류까지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기상정보까지 고려, 최적의 항로를 선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삼성중공업은 97년부터 20억원을 들여 이를 개발하였으며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20% 이상 저렴하다 최근에 이탈리아 몬타나리사가 발주한 대형유조선에 60만달러에 탑재, 호평을 받았으며 독일, 미국, 한국 등 국제공인 선급기관의 인정을 획득하였다

이 시스템기술은 국제해사기구(IMO)나 국제수로기구(IHO)가 정하는 각종 기준이 엄격해 조선기술 중 가장 난해한 기술로 인식돼 왔으며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이번 삼성이 개발, 기술자립의 길을 열었다 이 분야의 세계시장규모는 연4억달러 정도이나 2010년에는 1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삼성은 앞으로 3년내 매출 1억달러, 시장점유율 25%를 점유율 목표하고 있다

*** 선박4척 4억弗 수주 ***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4척을 3억8,400만달러에 수주했다 2척은 유럽계 다국적 선사인 아티나시핑사에서 1억2,000만달러

에 수주한 5,4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길이 261m, 폭 40m, 길이 24m로 2001년 상반기에 인도된다. 또 노르웨이의 버그샤브사에서 10만t급 셔틀탱커 한 척을 5,000만달러에 수주했으며 이 배는 길이 239m, 폭 42m, 깊이 21m로 2001년 상반기에 인도돼 북해 유전지역의 원유를 노르웨이 북부 원유저장소까지 운반하는 특수선이다

이와 함께 SK해운과 일본 선사가 합작해 설립한 스텔라시핑사에서 13만5,000m³ LNG선 한 척을 2억1,4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 들어 모두 6억84,000만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려 선박 건조물량이 72척 480만t에 달해 2년 이상 안정적인 조업물량을 확보하게되었다

대우중공업

*** 호화 카페리선 1억8천만弗 수주 ***

대우중공업이 이탈리아의 모비라인사로부터 호화카페리선 2척을 1억8천만달러에 수주했다 대우가 수주한 카페리선은 길이 1백79m, 폭 27m, 높이 9.8m의 초대형으로 29 5노트(시속 54 6km)로 운항할 수 있으며, 승객은 2천명, 자동차는 6백65대까지 실을 수 있다

북유럽 유람선 수준의 최고급 사양을 갖춘 카페리로서 3백여개의 고급 객실, 무도장, 수영장, 카드룸 등 각종 편의시설, 레스토랑, 카페, 오락실 등이 설치될 이 선박을 대우중공업은 2001년 6월까지 선주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 FPSO 건조 성공 ***

대우중공업이 빙해지역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고난도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선)를 건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선박은 일본 등 조선선진국에서도 건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특수선박으로 국내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보여주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FPSO는 캐나다 HCI(Halliburton Canada Inc.)사로부터 지난 97년 8월 1억5천만달러에 수주한 14만t급 규모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캐나다북부 뉴펀들랜드 동쪽 3백50km 지점 빙해지역의 테라노바 해상유전에 설치된다 이 선박은 원유를 생산 가공하고 저장했다가 원유운반선에 옮겨 실어주는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웬만한 유빙에 부딪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우가 이번에 건조한 FPSO는 그 동안 건조된 다른 모델의 FPSO보다 한 등급 높은 극한등급 선박으로 까다로운 캐나다 선박건조규정에 맞춰 건조됐으며 대우는 이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것을 계기로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선 비율을 전체매출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가스공사

*** 선택형 복지시스템 판매 ***

한국가스공사가 천우소프트(주)와 공동개발한 선택형 복리 후생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설명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나선다. 가스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금액 한도안에서 직원이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의료지원, 자기계발, 문화, 생활복지 중에서 선택항목별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용을 증명할 영수증을 내면 되며 종전의 복리후생제도가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복지비용 및 직원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라 이런 시스템을 개발

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선택형 복리후생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설명회를 갖게 됐다

동아건설

*** 리비아 대수로 기술료 1억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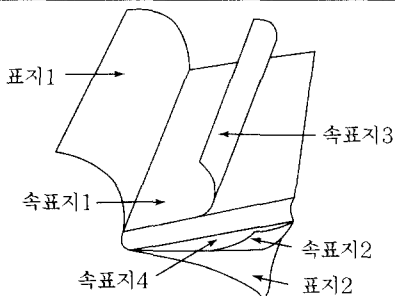
동아건설이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대한 기술지원료로 리비아 트리폴리 현지에서 대수로 공사를 전담하는 리비아 정부 투자기관인 ANC와 2003년까지 적어도 공사비의 4%인 1억달러를 기술지원료로 받게 되었다.

동아건설은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기술지원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료는 평균 5%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3단계 1차분공사 12억달러와 2단계 추가공사 등 지금까지 확정된 20억달러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1억달러 정도의 기술지원료 수입을 얻게될 전망이다. 동아건설은 기술지원료외에 ANC의 지분을 25% 갖고 있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공사비를 받게 된다. 국내 건설업체가 시공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로열티격인 기술지원료를 받기는 동아건설이 처음이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림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x30cm	500,000원	칼 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기타사항 ***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 할인 (표지1,2, 속표지1 제외)
 -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